

2021년 10월 ㄱㄷ제목

지난 달에 1 달 정도 ㄱ회를 섬겼던 사역자 가정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스탄불에서 이사온 다른 한 가정이 9 월 초부터 ㄱ회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 몇달 전에 남편 사역자 혼자 지방도시들을 탐방하는 길에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2 시간 정도 사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약 1 달 반 전에 아다나로 이사오기 위해 아파트를 구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공항에서 픽업해서 조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탄불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두 자녀(3 살된 딸, 1 살된 아들)와 함께 이사와서 저희 ㄱ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느라 늦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40 대초의 가정인데, 아다나에서 성공적으로 K-문화사역(이곳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아 젊은 사역자들의 선호의 대상임)을 하고 있는 팀의 유혹을 뿌리치고 저희 ㄱ회에 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와 ㄱ회개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 년 반 전에 이 나라에 와서 언어 실력도 부족하고 ㄱ회 사역 경험도 없어서 저희 ㄱ회에 성도로서 참석하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그 동안 겪어보았던, 이들이 소속된 국제 단체의 국가팀장과 한 한인사역자와 통화하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ㄱ회의 모든 모임들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잘 정착하는 것 같아 펍이나 다행입니다.

한국의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남편은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않은 이유는, 선교지에서 누가 "목사이냐?"고 물어볼 경우,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언어학을 공부해서인지 짧은 체류기간에 비해 터키어를 잘 구사합니다. 3 살된 딸, 귀여운 도나는 우리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부릅니다. 선교지에서 사느라고 이제는 다 커버린 외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애들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ㄱ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ㄱ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사진 첨부)

- 지난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한인 사역자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남편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ㄱ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다나 프나르 ㄱ회

○배가 중단없이 계속 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성도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지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2. 성도들의 개인 기도제목

모든 성도들의 삶은 소망이 없어보일 만큼 열악하고 막막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모습과 달리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의 믿음을 보며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고, 함께 부르짖으며 예배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수다베:** 부러졌던 팔의 더딘 치유 원인이 심한 골다공증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저녁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의 운전면허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직장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회의 중보자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 **베히에:** 여름을 반에서 지내고 아다나로 돌아왔는데 이곳의 남았던 남편의 불량한 삶을 알게 되며 분노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자매가 믿음으로 이기고 새 힘을 얻도록...

- **술탄:** 아들 해발에게 올 겨울까지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자매의 전화기가 없어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가장 어두운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 **잔, 말라한 부부:** 가정이 더욱 더 화목해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잔은 허리 디스크로 힘이 드는데도 목공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밤에 기도 모임에 들어오고 있는데 부르짖는 부부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도록...

- **갈립, 씨난과 굴텐** 가정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홀리아** 가족이 다시 예배를 그리워하며 교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 새로 오신 **산돌, 조이** 선생님 가정의 딸, 도나가 심한 아토피로 채소와 쌀, 콩류만 먹어야 하고, 가려움으로 엄마와 딸이 밤을 새우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어린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속히 치유되도록...

3.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매일 확진자수가 2만7천명대이고 사망자수도 2백5십명 이상인데 패닉 상황은 아니고, 정부는 통제보다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장 상황이 완화되어질 수 있기를...

4. 전도

10월부터 자매들과 공원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자매들이 전도의 사명자로 일어서서 잘 훈련되도록...

5. 아다나 ㄱㄷ의 집

한인 여성 사역자들, 술탄과 수다베가 ㄱ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아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6.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중국산 백신을 두번 맞은 저희는 돌파 감염이 많은 관계로 독일 바이오앤텍의 백신으로 3번째 주사를 맞았습니다. 건강하게 ㄱ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 딸(수잔)과 아들(스티븐)의 가정이 ㄱ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김샘물, 하나 드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3)